

通度八景의 景觀象徵性和 敘事構造

노재현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A Study on the Landscape Symbolism of Tongdo-palkyung and Its Narrative Structure

Rho, Jae-Hy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illuminate the features and values of the Buddhist temple Palkyung by closely examining the forms, structures, and meanings of Tongdo-palkyung(通度八景) handed down at Tongdosa Temple, the best among Korea's Buddhist temples with its three treasures of Buddha, law of Buddha and Buddhist monk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of all, it reveals the meaning of the geographical name Yeongchuksan(靈鷲山), located to the west of Tongdosa, and a spectacular sight spread like an eagle's spread wings, as well as its location and spatial features. In particular, the arrangement features of a number of attached hermitages clearly show Yeongchuksan's world as being a temple with buddhist treasures. The multi-layered unfolding and centripetal intention of the scenery can be perceived through the shape of the Sshangryongnongju(雙龍弄珠形), around Tongdosa and the feature of the enclosed landscape encircling the steps of Hyeolcheo(穴處) Geumganggyedan.

The substances and components of Tongdopalkyung include sound-based spectacles derived from Beoneumgu(梵音具) creating sounds related to religious rituals to enlighten and redeem mankind, such as Yeongji(影池: a holy pond with shadow reflections), drum sounds, and bell sounds along with physical features like pine trees, Dae(臺), waterfalls, Dongcheon(洞天), and a glow in the sky. On the other hand, Palkyung's geographical arrangements exhibit a circular spatial formation based on the main motif as Buddhist symbolism, beginning with the 'Gukjangsangseokpyo(國長生石標)' awakening the territoriality of Tongdosa and locating the first scene 'Mupunghansong(舞風寒松)' in its introductory area, with the features of water, bridge, pine grove, and Iljumun(gate) to stand for the influx. Six other scenes including 'Anyangdongdae(安養東臺)' are placed in the sacred precincts around Daeungjeon and Geumganggyedan while the glow of sunset at 'Danjoseong' just outside the domain closes the symbolic circular formation of the Tongdopalkyung, which coincide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andala figure symbolizing 'Gusanpalhae(九山八海)' centered in Sumisan(須彌山).

What is more, Tongdopalkyung, while excluding primary scenic elements inside the temple, maximizes the domain of the mountain's entrance and the effects of the multi-layered mountain, mountain upon mountain, by intensifying the influx and centripetal qualities. The Tongdopalkyung analysis reveals the antithesis of four-coupled scenes conveying buddhist principles and thoughts on the basis of seasons, directions, space and time to display a narrative structural landscape when viewed from the temple's territoriality.

Likewise, the characteristics and porch structures of Tongdopalkyung are tools and language of symbols to both externally strengthen the temple's territoriality and to internally, maximize the desires to the Land of Happiness as well as intensify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Rho, Jae-Hy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Samnye-eup, Wanju-gun, Jeollabuk-do 565-701, Korea. Phone : +82-63-290-1494, E-mail : orchid@woosuk.ac.kr

religious wishes and the Mandala's multi-layered qualities through the meanings of time and space.

Key Words: Tongdo Palkyung, Narrative Structure, Centered, Territoriality, Multi-layered Qualities

국문초록

국내 삼보사찰의 하나인 통도사에 전래되는 통도팔경의 형식과 구조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서 ‘통도팔경’의 상징성과 팔경의 포치적 서사구조를 조명하기 위해 시도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도사 서쪽의 영축산이 갖는 지명의 의미와 독수리 날개길과 같이 배경에 펼쳐진 영축산의 웅혼한 장관(壯觀) 그리고 다수의 부속암자의 원심적 배치 특성과 위용에서 통도사의 불보세계관이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쌍룡농주형의 형국과 혈처(穴處)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위요경관적 특성에서는 통도사의 중층적 경관전개와 구심적 경관의도가 감지된다. 통도팔경의 경관내용과 구성요소는 소나무, 대(臺), 폭포, 동천(洞天) 그리고 노을 등 물리적 경관 이외에 영지(影池)와 북소리, 종소리 등 불교의식과 관련한 범음구(梵音具)에서 파생되는 청각적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중생을 교화·제도하기 위한 소리경관이 강조되고 있다. 팔경의 포치를 살펴볼 때, 통도사 영역을 일깨워주는 국장생석표를 시작으로 물과 다리 그리고 송림숲과 일주문으로 연결되는 유입부에 제1경 ‘무풍한송’을 배열하고, 대웅전과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둘러 펼쳐진 경역의 요처에 안양동대 등에 6개경을 배치하는 한편, 영역 밖 ‘단조성에서 조망한 낙조’를 복단에 설정함으로써 불교적 상징성을 주요 모티브로 하는 원심적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구산팔해를 상징화한 만다라 형상의 전개와 일치한다. 더욱이 통도팔경은 사찰 경내의 요처인 주경관 요소를 배제하고 유입성과 원심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산문의 영역성과 중첩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팔경의 경관해석 결과로 볼 때 통도팔경은 2개경씩 4쌍의 경이 대구(對句)를 이루면서 계절성, 방향성, 공간성 그리고 시간성을 축으로 불교적 교리와 관념을 담으며 사찰 영역에서 바라본 서사적 풍경임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표제의 성격과 포치구도는 물론 의미내용을 볼 때 통도팔경은 외적으로는 통도사의 사찰 영역성을 보다 강화시킬 위한 장치이자 가시적 표상이며, 내적으로는 시공간적 의미 속에 극락세계로의 지향 염원을 극대화하고 종교적 염원과 만다라의 중층적 성격을 강화하기 이루어진 경관 상징언어로 해석된다.

주제어 : 통도팔경, 서사구조, 중심성, 영역성, 중첩성

I. 서론

팔경은 협의의 정의로는 특정 지역의 멋과 향토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여덟 승경을 지칭한다. 그 보다 십경·십이경 등으로 외연(外緣)이 확대된 집경(集景) 또한 광의적 의미로 팔경의 범주에 포함한다. 대부분의 의미론적 팔경은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도 흔히 발견되는데, 시점을 누정(樓亭)으로 고정하여 조망한 ‘정자팔경’과 일정한 면적 공간에서 특별한 조망대상의 승경을 모은 ‘읍치팔경¹⁾’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사례나 분류체계와는 달리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통도팔경’이 있으니 이는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 하나인 불보사찰 통도사에 전래되는 여덟 가지 아름다운 승경을 지칭한다. 통도팔경은 영축산 동쪽 산록을 따라 발달한 통도천계곡에 분포하고 있는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불교문화적 특성을 표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무풍한송(舞風寒松), 안양동대(安養東臺), 비로폭포(毘盧瀑布), 자장동천(慈藏洞天), 극락영지(極

樂影池), 백운명고(白雲鳴鼓), 단성낙조(丹城落照) 그리고 취운모종(翠雲暮鐘) 등의 여덟 풍광을 상찬한 것이다(<http://tongdomuseum.or.kr>).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소우주로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기 주변도 하나의 소우주로 생각하여 기거하는 곳의 특이한 경물이나 물상 그리고 인간 삶의 형태와 연결하고자 하였음(최기수, 1990)에서 볼 수 있듯이 팔경은 그 지방 자연풍토 아래 문화적 정서가 담겨 있으며, 그 지역 토착민의 경관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안에 내재된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찰 통도사에 전래되는 팔경은 기존 읍치팔경이나 정자팔경과는 다른 경관언어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여덟 경관을 보면 실제 통도사 공간의 정점에 위치한 금강계단은 물론 대웅전과 구룡지 등 상로전의 중심요소와 사찰내 주축선을 이루는 중노전·하노전 영역의 경관요소는 배제한 채 대부분 통도사 진입부와 외곽에 배치된 암자를 주대상으로 팔경을 포치한 특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통도사 경내의 아름다움을 상찬하

기 위한 것이 아님을 직감하게 됨에 따라 통도팔경은 유가적(儒家的) 관습의 산물인 사찰 제영시(김갑기, 2007)의 일반적 작시(作詩) 태도에서 벗어나 특정의 의미 상징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장치가 아니었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본 연구는 국내 삼보사찰 가운데 하나인 통도사에 전래되는 통도팔경의 형식과 구조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사찰 팔경 통도팔경'이 갖는 서사적 공간구조와 경관 상징성을 조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II. 통도사 관련 연구동향

통도사 관련 기존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 크게 4가지 갈래로 유형화된다. 통도사 외부공간의 성격과 구성기법을 공간론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통도사 구성에 개입된 교리적 차원의 연구 그리고 통도사 공간 및 경관에 내재된 의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통도사경관의 보전과 활용을 전제로 한 실용적 연구 등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부류의 연구는 울산대학교 건축대학(1980)의 통도사 가람배치 실측조사를 기점으로 통도사의 공간구조와 그 변화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김경호, 1978; 안영배, 1981; 한동수와 이해성, 1986; 이동영과 김을용, 1990; 이강훈, 1993; 주용규, 1995; 홍윤식, 1997; 서치상, 2000; 홍재동, 2001; 김재영, 2004)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김병우와 김복만(1982)이 신라인의 조경의식적 관점에서 통도사의 조경적 특성을 다룬 것도 동일한 맥락의 연구로 보인다. 이들 연구 대부분은 통도사 가람배치의 체계와 조영원리 그리고 그 변화과정을 살핀 것으로 대부분 논의의 초점은 통도사 건축공간의 중심성에 모아져 있다. 김광현(1985)에 의해 이루어진 통도사의 중층적 전개 논의 또한 그 범주의 연구로 파악된다.

두 번째 부류는 통도사 공간구성에 담긴 교리적 성격의 연구로 이규성(1985)은 정연한 건축체계로서 통도사의 건축구성을 살폈고, 강현욱(1993)은 삼보사찰의 건축공간에 내재된 공간질서를 살피고자 하였다. 오흥선(1999)은 의식(儀式)을 통해 본 통도사 공간구성 특성에 관심을 보인 반면, 양상현(1999)은 통도사를 비롯한 조선시대 사찰배치의 서사구조를 논의하면서 사찰영역의 특성을 유입성-선형성-중심성-원심성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혁(2000)은 산문을 중심으로 한 전통사찰 진입공간의 의미특성을 살폈고, 조남두(2003)는 교리적 측면에서 수공간 구획지의 의도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배정관(2005) 역시 조계종 사찰을 중심으로 사찰 내 암자의 입지특성을 교리적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세 번째 부류의 연구는 통도사 공간 및 경관에 내재된 의미와 상징성에 관한 것으로 두 번째 부류와 맥을 같이 하지만 통도사 주변의 경관적 함의 및 가치 구명과 관련된 것으로서 윤성호(1987)가 통도사를 대상으로 사찰건축 외부공간의 상징성 연구를 수행한 이래 이승훈(1994)은 통도사

를 대상으로 종교적 경관에서의 상징 표현방법에 관해, 기태후(2004)와 오영미(2009)는 풍수지리학적 입지특성을 통해 통도사의 입지와 장소성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이권영과 서치상(2002)은 통도사 자장암 건축에 내재된 조영의도와 미의식에 관해 심층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류의 연구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경관 이용관리적 측면의 연구로 대별된다. 이명진(1998)은 통도사를 대상으로 사찰관광지 해설프로그램의 개발을 추구하고, 안동선(2002)은 통도사 관광자원의 상대적 특성을 '경관매력성'으로 규정하였다.

제시한 바와 같이 통도사 관련 조영 및 경관 관련 연구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수행되어 왔지만, 통도팔경은 물론 사찰 통도사와 그 주변의 상징성과 공간 위계를 동시에 조명함으로써 불보사찰 통도사 고유의 경관 상징체계를 살피고자 시도된 연구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내용

사찰 팔경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중 제영시가 전해지고 있는 것은 고려시대 이규보의 <次惠文長²⁾老水多寺八詠詩>에서 등장하는 '水多寺八詠'(박연호, 2004)과 조선 후기 혜경(慧暻: 1830~1908)의 작품으로 알려진 가야산의 해인사 13경³⁾(안제인, 2008) 등 극히 제한적이다. 이 중 수다사팔경은 절을 소재로 한 팔경시로서는 특이하게 사찰의 주요 구성요소인 대웅전이나 전각, 불상 또는 탑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난간, 누각, 우물, 못, 오솔길, 시내, 누대 등 정원적 면모에 주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명승형 팔경으로 관동팔경이나 단양팔경처럼 경관 대상만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소개된 심묘사팔경(深妙寺八景)⁴⁾이 있다. 그러나 소상팔경식 표제어로 구성된 8개경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는 본 연구대상인 통도팔경이 유일하다. 통도팔경은 찬불가로도 불리며(법보신문, 2008), 통도사 정보박물관의 공식 홈페이지(<http://tongdomuseum.or.kr>)는 물론 다수의 연구보고 및 문헌(울산대학교 건축대학, 1980; 정각, 2007)에서 소개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정확한 태동시기 및 제영자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

유가적 전유물이었던 소상팔경 등 팔경문화가 불가(佛家)에서 작품화된 사례는 월저 도안(1638~1715), 추봉 설암(1651~1706) 그리고 법종 허정(1670~1732) 등의 작품만이 겨우 알려지고(조태상, 2009) 있을 정도로 희소하다. 통도팔경의 성격과 내용을 볼 때 통도사에 기거하던 수행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으나, 아쉽게도 현재 그 작성시기나 작성자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문헌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도팔경의 대상장이 되는 암자는 비로암이 건립된 1345년 이후 일정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루어진 것

표 1. 통도팔경 대상장 암자별 연혁과 특성

암자명	건립시기		특기사항
	창건	중건	
안양암	1295년(고려 충열왕 21년)	1865년(조선 고종 2년)	1968년 우송화상이 중수, 안양동대 위에 있고 본사와 500m 이격
비로암	1345년(고려 충목왕 원년)	1578년(조선 선조 11년)	극락암 서북 500m 지점에 위치
자장암	신라 진평왕대	1870년대 중건	1963년 용복화상이 중수, 1896년 조성된 마애불과 자장의 영정을 봉안한 자장전, 금개구리(金蛙) 전설 전래
극락암	1344년(고려 충혜왕 5년)	1758년(조선 영조 34년)	극락호국사원이라 하며 1868년 경봉화상이 중수, 9동 104문의 독립사찰
백운암	892년(신라 진성왕 6년)	1810년(조선 순조 10년)	영축산 산봉에 근접한 암자, 금수(金水)라는 약수가 있음
취운암	1650년(조선 효종 원년)	1795년(조선 정조 19년)	대웅전 증건된 남은 돈으로 건립, 역대고승들의 住錫, 사리부도가 즐비함

로 보인다. 이렇듯 통도팔경은 통도사 건립 이전 자장암을 비롯하여 초기 조성된 백운암, 안양암, 극락암, 비로암을 모두 포함하며, 여기에 1650년 건립된 취운암을 포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최소한 통도팔경의 유래는 취운암 건립 시점인 1650년 이후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과 범위는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통도사의 입지환경과 풍수적 국면에 관련한 가람 및 주변 경관상을 개관하고, 둘째, 통도팔경의 포치구도 등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해 통도사 팔경의 배분 특성을 사찰구성요소의 서사적 배치구조를 고찰하는 것이며, 셋째, 통도팔경 표제어의 어휘소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해 통도팔경의 형식과 구조 그리고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사찰팔경으로 분류한 통도사 팔경의 경관적 함의와 상징성을 해석하는 것이다.

통도팔경의 대상장은 무풍한송과 단성낙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암자를 대상장으로 삼고 있으며, 대상 암자명은 ‘비로(毘盧)’나 ‘자장(慈藏)’ 그리고 ‘안양(安養)’, ‘극락(極樂)’, ‘백운(白雲)’, ‘취운(翠雲)’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처나 통도사 창건주를 지칭하거나 ‘더없이 넉넉하고 편안한 심적 상태’를 암자의 의미로 삼고 있음이 발견된다. 특히 안양과 극락세계는 서방극락정토와 동일한 의미이며(양상현, 1999), 읍치팔경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팔경 결속어 ‘낙조’는 사찰이라는 공간 속에서의 지향성은 색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별도의 제영시가 전해지지 않고 소표제만 전해지는 까닭에 통도팔경의 시적 경관이미지를 감지하기는 어렵다. 다만 김갑기(2007)와 안제인(2008)이 사찰 제영시의 수사적 특징을 회화성과 용사성(用事性)임을 밝히고 시에 표출된 공간적 특징으로 ‘자연공간으로서의 사찰’, ‘회고와 교류의 장’ 그리고 선미(仙味)와 한정(閑情)의 미학으로 설정한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통도팔경에 담긴 회화적 서경성과 사찰적 정취를 예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2. 분석 및 해석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문헌 연구는 통도사 관련 연구논문과 문헌자료 등을 통해 통도사의 건축 및 교리적 상징성 그리고 풍수경관적 면모를 살펴보았다.

통도팔경 대상장 암자별 연혁과 특성을 문헌고찰한 뒤 통도팔경의 각 대상장을 현지 답사하여 주경관대상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하였다. 그리고 암자와 사찰 내외부의 시설 및 건축배치 특성과 통도팔경의 대상 위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통도팔경의 배분 및 포치 특성에 드러난 의미와 상징성을 조선시대 사찰구조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각 경의 배치 특성을 항공사진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팔경의 포치구도와 경관적 영향권을 유추하였으며, 표제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주대상과 지각특성을 파악하고 통도팔경의 상징성을 추론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통도사의 입지와 풍수경관

통도사는 동쪽으로 천성산, 서쪽으로 영축산 줄기가 각각 남북으로 길게 뻗고 그 사이 이 동·서산의 계곡을 발원지로 하는 양산천이 북쪽으로 흘러내려 남쪽 끝의 물금에서 낙동강과 합류되는 상류에 입지하고 있다(심봉근, 2002). 통도사의 주산인 해발 1,081m의 영축산(靈鷲山)은 원래 인도 마가다하(Magadha)국 왕사성(Rajarha)의 동쪽 산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통도사라는 사찰명 또한 “산의 모습이 인도 영축산과 통한다(此山之形 通於印度靈鷲山形)”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통도사를 포용하고 있는 영축산은 지명도 다양한데⁵⁾, 특히 신선과 독수리가 많이 사는 산으로 석가모니부처가 범화경을 설하셨던 산과 흡사하다고 하여 자장율사가 영축산이라 명명했다고 전한다(정보박물관, 2001; 김형우 등, 2004). 가지산도립공원 구역 안에 있는 영축산은 정상으로부터 신불산 정상에 이르는 드넓은 억새능선으로도 유명하다.

통도사는 불보사찰의 위용답게 다수의 부속암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자장암 등 현재 20개 암자로 이루어진 통도사 경내의 암자들은 통도사를 배경으로 펼쳐진 영축산이 갖고 있는 불보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은 통도사 정보박물관 소장 지도 ‘통도사전경도’로 조선 말기 통도사의 가람배치의 국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내의 대웅전과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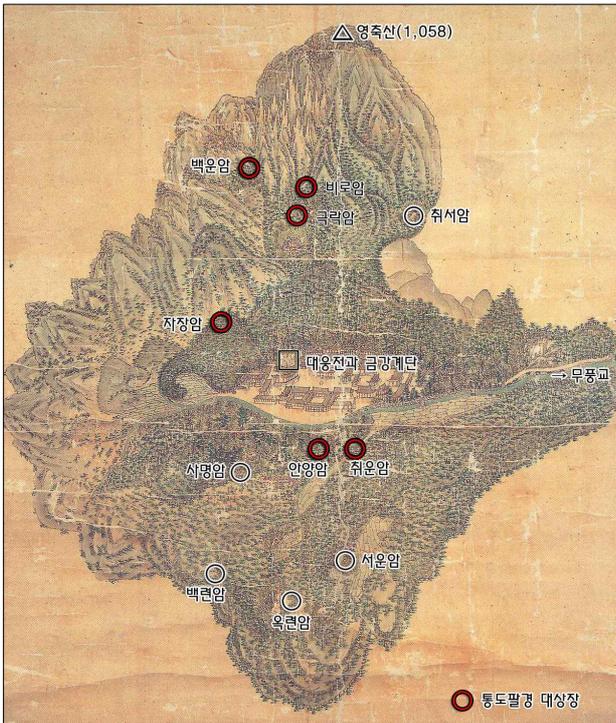


그림 1. 통도사전경도에 나타난 암자
 자료: 통도사 성보박물관, 2002. 61쪽 재구성

둘러싸인 산봉과 요소요소에 조성된 다수의 암자들 그리고 이 가운데로 가로질러 통도팔경의 제1경의 지점인 무풍교(舞風橋)를 향해 뻗어나가는 계류 등은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심적 경관구도와 광대한 통도사 경역을 강조하고 있다. 장영훈(2007)은 통도사가 용의 뱃속에 들어있다는 국면이 안양암에서 일망무제하게 조망됨을 지적하면서 이곳에서는 북룡의 머리 너머 저편에는 남쪽에서 뻗어온 산줄기 하나가 다시 통도사를 감싼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통도사의 형국을 용의 아가리 앞에 영축산문의 입구가 있으며, 통도사를 감싸는 북룡과 남룡 한쌍이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며 여의주를 희롱하는 쌍룡농주형(雙龍弄珠形)으로 설명하였다.

그림 2와 같이 통도사의 지형 체계는 통도사를 중심으로 동쪽이 터져있는 반면 서·남·북측은 완전히 위요되고 영축산을 중심으로 한피기고개 및 시살등 등으로 에워싸여져 있다. 이와 같은 형상을 풍수 국면으로 살펴보면 영축산문을 들어서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 통도팔경 제1경의 대상장 중심인 무풍교로, 다리 아래에 통도사의 외명당 영역을 결정짓는 외수구(外水口)가 되는데, 이곳은 영축산에서 뻗어온 외청룡의 끝자락과 조산(朝山)의 끝자락이 서로 겹쳐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듯 무풍교는 통도사의 내외명당 앞을 감싸며 흘러온 물이 외청룡 뒷자락에서 득수하여 흘러온 물과 서로 만나는 합수지점이기도 하다.

통도사의 입지는 영축산의 백호자락에서 뻗어 내린 여러 지룡(枝龍)들이 서로 에워싸는 곳일 뿐 아니라 여러 물길들이 서로 합쳐지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통도사 주산에 해당되는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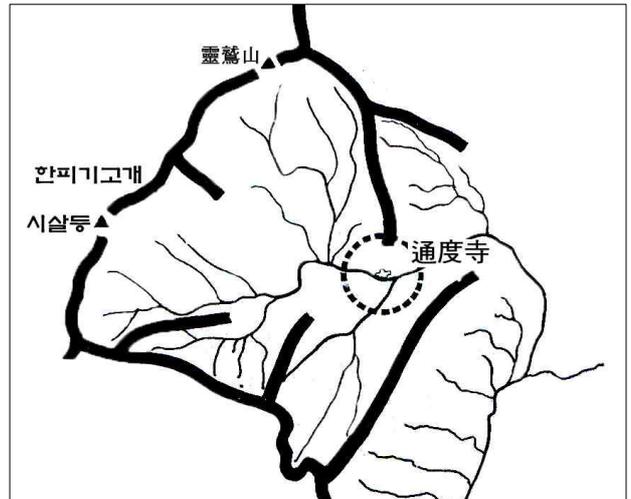


그림 2. 통도사의 지형 체계
 자료: 울산대학교 건축대학,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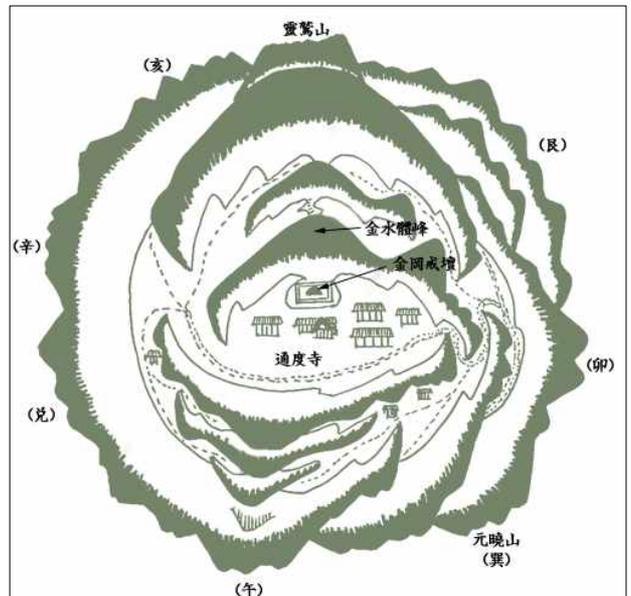


그림 3. 통도사 금강계단 도형
 자료: <http://cafe.naver.com/mahamudra>.

축산 정상에서 맥이 나뉘어 백호용맥은 백운암쪽으로 먼저 축맥하여 한피기고개, 시살등 그리고 백운암과 서운암을 감싸고 회전하여(그림 3 참조) 통도사 정문인 영축산문 밖에서 청룡을 맞이하고 멈춰 선다. 한편 청룡맥은 통도사 방향인 지산리쪽으로 진행하여 현무봉을 이루고 여기서 좌출맥한 청룡은 금강계단을 향하여 진행하며 현무봉에서 뻗어나간 청룡은 영축산문을 거쳐 산문 밖에서 백호를 맞이하고 멈춰 서게 된다. 영축산의 백호용맥은 회고 수려한 바위산의 험준함과 생동감으로 통도사 안산 영역으로 뻗어 내려오는 동안 기세가 완화되어 부드럽게 변화하여 신평리에서 청룡을 마주보며 멈추면서 '달친공간'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통도사는 세와 형을 두루 잘 갖춘 풍수적 논리를 충족하는 가람터를 형성하고 있다(기태후, 2004). 이와 같은 국면으로 인해 자장암, 안양암, 극락

암, 비로암 등의 암자에서는 배경의 구도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나, 영축산의 독수리 날개깃에 둘러싸인 드라마틱한 경관이 전개된다.

그림 3과 같이 병풍산의 작은 맥 하나가 남남서쪽에서 돌아 들어와 안산이 된 뒤 오른쪽으로 돌아 내백호가 됐고 내청룡은 주산가지로 이루어졌으며, 금체 토두봉 좌측에서 떨어진 산가지는 외청룡이 돼 여러 준봉들을 세운 뒤 손방(巽方) 원효산까지 흘러가 마무리를 지었다. 또한 이 터의 외백호는 북북서쪽의 해방(亥方)으로 부터 남남서쪽의 정방(丁方)에 이르기까지 장대한 큰 병풍을 둘러친 모습으로 늘어서서 혈장에 큰 기를 모아주는 형상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통도사권역은 위요경관적 성격이 강하며 금강계단의 위치는 통도사권역권의 혈(穴) 자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통도팔경의 내용과 구조

1) 통도팔경의 내용과 의미

통도팔경의 경관내용(그림 4 참조)과 구성요소는 표 2와 같

다. 통도팔경의 1경~4경 그리고 7경의 주대상은 소나무, 대(臺), 폭포, 동천(洞天) 그리고 노을 등 물리적 경관요소를 내세운 반면 5경과 6경 그리고 8경에서는 영지(影池)와 북소리, 종소리 등 불교의식과 관련하여 소리를 내는 범음구(梵音具)에서 파생되는 청각적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중생을 교화·제도하기 위한 소리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범종의 신앙적 의미는 모든 중생이 종소리를 듣는 순간 번뇌가 없어지고 지혜가 생겨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지옥중생까지 제도하는 데 있으며, 티종 횃수 또한 상징성을 내포하는데 28번 타종은 육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의 하늘나라 대중에게 부처님의 도량으로 모이라는 소리이며, 33번을 치는 이유는 33천의 하늘문을 열고 닫는 의미가 있다(<http://www.dosunsa.or.kr>).

또한 사찰에서는 아침·저녁 예불 때 치는 법고(法鼓) 또한 축생 제도라는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전에는 대지(大地)가 18가지 모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천고(天鼓)가 스스로 울린다 하여 '하늘북'을 말하기도 하고, '정법의 북'을 쳐서 십방세계(十方世界)를 깨우치게 한다고 하여 추상적이고 상징적 의미로써 북을 말하기도 한다(<http://blog.daum.net>). 따라서

표 2. 통도팔경의 내용과 지각특성

통도팔경	경관내용	주대상	장소	지각
1경 무풍한송(舞風寒松)	영축산문에서 일주문에 이르는 진입로에 어우러진 겨울 소나무	송림(松林)	진입로	시각요소
2경 안양동대(安養東臺)	일출시 안양암에서 조망한 통도사의 파노라미한 광경	대(臺)	안양암	시각요소
3경 비로폭포(毘盧瀑布)	비로암 서북측 폭포의 낙수소리	폭포(瀑)	비로암	시청각요소
4경 자장동천(慈藏洞天)	자장암 계곡의 계류와 영축산 산록의 구름지, 암벽 등의 조화	동천	자장암	공감각요소
5경 극락영지(極樂影池)	영축산의 수려한 풍광을 담고 있는 극락암 연못	영지	극락암	시각요소
6경 백운명고(白雲鳴鼓)	엄불당이 있을 때 들리던 백운암의 큰북소리	북소리	백운암	청각요소
7경 단성낙조(丹城落照)	영축산 정상에 축조한 단조성(丹鳥城)에서 조망한 저녁노을	노을	단조성	시각요소
8경 취운모종(翠雲暮鐘)	취운암에서 들리는 저녁 범종소리	종소리	취운암	청각요소



그림 4. 통도팔경의 대상장
자료: 필자 촬영

법고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경전상의 복을 불교 의식 속에 구체화한 법구가 아닐 수 없다. 8경의 취운모종의 종소리는 6경 백운명고의 대상장 백운암의 '흰 구름[白雲]과 어울려 선심(禪心)과 함께 한 줄기 울림 즉 전법(傳法)을 상징한다.

서언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경은 산문(山門)의 집입부를, 7경은 사찰경내를 벗어난 외부로 삼았으며, 나머지 6개경은 모두 부속 암자를 대상장으로 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통도팔경에서는 진각 통도사 경내의 대웅전이나 금강계단, 극락보전, 응진전, 만세루 등의 전각은 물론 구룡지나 삼층석탑과 같은 사찰내 대표적 전각이나 상징물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 한편 시각요소 이외에 '백운명고'나 '취운모종'처럼 순수한 소리경관이 2개나 포함되어 있으며, '비로폭포'와 같은 시청각요소는 물론 '무풍한송'과 같은 촉각적 속성을 갖는 경관도 발견된다. 더불어 통도팔경의 제4경인 자장동전은 안양동대의 서쪽 자장암 아래에 발달한 계류를 지칭하는데, 대상장인 자장암은 작은 불국의 세계가 전개되는 곳이자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가 암벽 아래에 움막을 짓고 수도하였던 곳이다. 자장암 옆 거암(巨巖) 구멍에 산다는 개구리는 금와보살(정각, 2007)로서 세부경관적 요소가 됨으로서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전설과 신화가 깃든 공간각적 경관이기도 하다. 또한 자장암은 우주를 바라보는 천문대 같은 곳으로 몸을 낮춘 영축산 너머로 별들의 세계가 만다라처럼 장엄하게 펼쳐져 있다(김개천, 2004). 한편, 유일하게 통도사 권역의 명소가 아닌 외부 구성요소를 주대상이자 시점장으로 선정한 제7경 단성낙조는 중국 소상팔경의 어촌낙조에서 설정한 한적한 자연공간 속에서 여유롭게 흥취(전경원, 2002)를 고원인 단조성의 고립된 이미지로 전환하여 표현하는 한편 해가 지는 서방의 극락정토를 암시한다.

2) 통도팔경의 구조

그림 5는 인공위성사진을 바탕으로 통도팔경의 경관 영향권과 통도사의 영역성을 파악하기 위해 팔경 각 경의 위치를 표



그림 5.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통도팔경의 포치
바탕자료: 다음 길찾기지도

표 3. 통도팔경의 경관 구성적 특성

통도팔경	대상장	의미		거리*
		대상장	주대상-모양	
舞風寒松	무풍교	바람에 흔들리는	겨울 - 춥다	1.5km
安養東臺	안양암	마음을 편히 하고 몸을 쉬게 함	동쪽 - 해뜨다	0.5km
昆巖瀑布	비로암	연화장세계의 비로자나불	폭포 - 시원하다	1.8km
慈藏洞天	자장암	통도사 창건자 대덕 자장율사	동천 - 깊다	1.0km
極樂影池	극락암	더없이 안락한 경지	연못 - 담다	1.5km
白雲鳴鼓	백운암	흰구름(오고가고함)	북 - 울다	2.7km
丹城落照	단조성	서방극락	해 - 떨어지다	3.3km
翠雲暮鐘	취운암	푸릇푸릇한 구름	저녁 - 들리다	0.4km

*통도사 금강계단을 중점으로 파악한 거리임

시한 것이다. 통도사의 중심인 금강계단(그림 6 참조)을 중심으로 한 대상장의 이격거리는 취운모종의 대상장인 취운암의 0.4km에서 단성낙조의 대상장 단조성까지 최대 3.3km의 반경내 배치되고 있다.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북동쪽의 무풍교와 북서쪽의 영축산까지를 반경 3.0km로 하는 영역내 팔경 속 암자들이 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3 참조).

통도사의 영역성을 알려주는 경계 표식은 통도사 국장생석표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국장생석표는 고려 선종 2년인 1087년에 국가에서 정해준 통도사의 경계 영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세운 12개의 비석으로 현재는 통도사 동북쪽 4km 지점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소재 국장생 석표(보물 제74호)와 울산시 울주군 상천리 소재 등 단 2기만 남아 있다. 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通度寺舍利袈裟事蹟略錄)이나 조선금석총람 등에 의하면 통도사 경역은 주위 4만7000보(步)가 되며, 이를 확인시키기 위해 사방 산천에 비보(裨補) 목적의 장생표를 세웠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통도사를 중심으로 사역(寺域)을 알려줄 뿐 아니라, 사찰의 경계, 풍수, 방액(防厄)을 위한 표식이기도 하다(통도사성보박물관, 2002). 국장생은 고려시대 사원전(寺院田)의 소유권을 공인해 준 동시에 무세지(無稅地)의 표시를 확인해 준 것(김윤곤, 1982)으로 볼 때, 통도사 사찰 소유 땅이 560만평(김영택, 2007)이라 함은 이에 근거함이다. 실제로 그



그림 6. 금강계단의 만다라적 형상
자료: 통도사 성보박물관

림 5에서 통도사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반경 3km내의 실제 면적은 28,260,000m²로 이를 환산하면 약 856만평임을 볼 때 3km 반경권역내 약 65%의 토지가 통도사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도팔경의 평균 경관영역권은 통도사 영역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통도팔경의 서사구조

1) 금강계단의 중심성과 만다라

통도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금강계단에 봉안하고 있기 때문에 삼보사찰 가운데 가장 으뜸인 불지종찰이요 국지대찰로(김봉열, 2006), 이로 인해 통도사는 대웅전에 부처님이 없는 사찰로 유명하다(이기영 등, 1999; <http://tongdomuseum.or.kr>). 통도사 창건시 공간구성형식의 예외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금강계단이 지닌 의미를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이자 수단이었다. 김봉열(2006)은 금강계단뿐만 아니라 통도사 대웅전의 지붕의 동남서 삼면에 합각면에 주목하였다. 즉, 팔각지붕의 합각면은 측면을 암시하기 때문에 대웅전은 3면 모두에 정면성을 없앤 형태로 역설적으로 대웅전의 모든 면이 정면이 됨으로써, 공간적 중심성뿐만 아니라 형태적 중심성도 획득하게 된다고 보았다. 불교적 우주관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화엄사상의 핵심은 ‘일즉다즉일(一卽多多卽一)’의 개념인 ‘하나가 전체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로 요약된다. 부분과 전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심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세계관을 도식한 것이 ‘만다라(曼多羅: mandala)’ 모형으로 이는 중심과 방향성, 부분들의 8면 대칭적 상징성으로 나타난다⁶⁾. 하나에서 나와서 넷으로의 전개되고 다시 하나(다섯)로서 통합되는 이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 수의 원형으로 원형들이란 원초적으로 정신 에너지의 역동적인 통합체 단위들을 재현한 것이다(김희경, 2000). 금강계단의 평면구조뿐만 아니라 대웅전의 평면 구조에서까지 여실히 보여주는 만다라적 형상은 하늘과 땅이 합쳐져 이루어진 만물을 품고 있는 세계, 더 나아가서 우주의 안정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며(석도열, 2000), 확대하여 사방의 넓이가 수 만평에 달하는 통도사 경역 그 자체가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펼쳐진 원심적 만다라공간이다.

2) 팔경요소의 원심적 배치와 의미

금강계단이 갖는 구심적 특성과 함께 배정관(2005)은 통도사 경내 암자들은 영축산이 갖고 있는 불보세계를 그대로 드러내며, 그 예로 통도사 암자 배치는 지장보살의 머리, 법륜, 왼손, 어깨 그리고 가부좌로 형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석가모니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불보사찰로서 불교의 사상과 상징성을 내포하여 지장보살상을 경내 전역에 펼쳐 놓음으로써 인간세계의 높은 이상향을 추구하는 조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았다⁷⁾. 안제인(2008) 또한 통도사 관련 기문 및 제영시는 특성을 경내의 경물보다는 진신사리의 영험함과 신묘함을 묘사하는데 치중하는 한편, 사찰의 경내 풍경과 주변 산세와의 조화가 잘 드러나고 있음을 강조한 데서도 잘 드러나 있다. 양상현(1999)은 삼국시대에 이어 통일신라시대까지 유지되던 탑, 금당 중심형의 사찰 배치방식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불교의 교리를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찰을 이야기에 흐름에 따라 배치하는 방식으로 조선시대 사찰 배치가 갖는 내용적 형식을 사성제(四聖제)의 구조와 비교하여 서사⁸⁾구조를 설명하였다(표 4 참조).

‘중심성’은 한국 전통사찰건축의 영원한 주제이며, 대표적 조영원리이듯 신라 말 이후 조선시대까지 산지사찰은 불교에서 이상적 세계관을 뜻하며, 계층적 질서의 구체적 표현인 수미산(須彌山)의 구조를 현실세계에서 표현하고자 한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불교의 이상적인 세계를 표상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수미산은 장엄적 경관요소를 도입하고, 계층적으로 공간을 조직화하여 불교적 상징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되었다(한국전통조경학회, 2009). 따라서 수미산의 개념은 사찰의 수직적 위계성을 표현하는 근본으로 작용하였으며, 더불어 지형의 처리, 삼문의 도입 등은 수미산구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상징언어(홍광표, 2008)이다. 수미산은 세계의 최하부를 풍륜(風輪)이라 하고 그 위에 수륜(水輪)·금륜(金輪·地輪)이 겹쳐 있으며, 금륜 위에 구산팔해(九山八海), 즉 수미산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8개의 큰 산이 둘러싸고 있고, 산과 산 사이에는 각각 대해가 있는데, 그 수가 8개라고 한다(곽철환, 2003; 배진달, 2009). 이 때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가운데에 수미산이 있고, 이 주위에 여덟 개의 바다와 산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일러 구산팔해라고 한다. 부처가 사는 궁전인 수미산 꼭대기에

표 4. 조선시대 사찰의 서사구조와 통도팔경의 영역

단계	공간특성	배치구성요소	통도팔경	수미산 상징	사성제
도입부	유입성	국장생석표, 물과 다리, 송림숲, 일주문	무풍한송		
사찰 진입부	선형성	천왕문, 극락보전, 삼층탑, 범종각, 만세루, 약사전, 불이문	생략	섬주부, 향수해, 일곱산맥	고(苦)
산문의 중첩	중심성	불이문, 대광명전, 용화전, 관음전, 오층탑, 개산조당		수미산등산: 사천왕전, 도리천	집(集)
불전과 마당		마당, 탑, 석등, 불전		불국토	멸(滅)
보살전	원심성	대웅전, 금강계단, 구룡지, 삼성각	안양동대의 6경	일생보처(一生報處)	도(道)
암자		자장암, 극락암, 백운암 등 20여암자			

자료: 양상현(1999), 87쪽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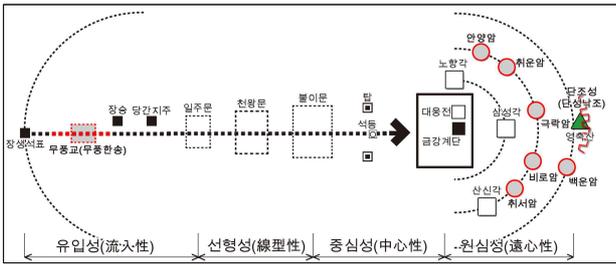


그림 7. 통도사의 서사구조와 통도팔경의 위치
 자료: 양상현(1999), 88쪽 재구성

오르려면 산과 바다를 건너야 하는 것처럼 사찰 경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절 초입에 놓인 다리는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와 진리의 땅인 피안정토를 구분하는 경계이자 두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통도사에서는 '무풍한송'의 주대상공간의 시점인 무풍교를 비롯하여 청류교-무명교1-선자교-삼성반월교-월영교-일승교-무명교2 등 다수의 다리가 있으며, 경내에도 구룡지 위의 향룡교 등이 있다. 창건 이후 여러 차례 공간적 중첩과 변용이 이루어진 통도사의 서사구조를 조선시대 사찰의 서사 구조로의 대응은 우리가 따르지만 통도팔경의 배치관점에서 본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재발견된 서사구조는 그림 7과 같다.

한동수와 이해성(1986)은 통도사영역의 형성과정과 구조분석을 통해 통도사 본사와의 구분되는 암자 등을 부영역으로 취급하였다. 이때 주영역과의 관계를 경계, 방향과 통로, 분절 그리고 중심으로 구분하면서 설명함으로써 통도사의 암자들은 주영역의 하위에 속하는 개별적 영역을 갖고 있는 동시에 전체 영역의 균형과 보호의 기능이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또 이러한 공간확대 과정을 김광현(1985)은 중층적 전개로 이은주(2000)는 점층적 상승구조로 보았다. 이렇듯 통도팔경은 통도사 영역을 일깨워주는 국장생석표를 시작으로 물과 다리 그리고 송림숲과 일주문으로 연결되는 유입부를 상징하는 도입부에 제1경 '무풍한송'을 배열하고, 대웅전과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둘러 펼쳐진 사찰내 요처에 '안양동대' 등에 6개경을 배치함으로써 불교적 상징성을 모티브로 한 원심적 공간구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구산팔해를 상징화한 만다라 형상을 보이며 전개되고 있음과 동질적인 도상이다. 이렇듯 통도팔경은 사찰 경내의 요처인 주경관 요소를 배제하고 유입성을 강조한 들머리숲과 사찰 주변의 원심적 경관요소인 암자와 그 너머의 옛 성터를 주경관으로 삼아 사찰 공간의 중첩과 원심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7 참조).

4. 통도팔경의 상징성

통도팔경의 1경과 3경은 한송과 폭포로 각각 겨울과 여름에 그 경관의 적나라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경관이다. 2경과 7



그림 8. 통도팔경의 상징성 해석

경은 동대와 낙조로 동쪽과 서쪽의 방위 지향성으로 설명된다. 4경과 5경의 동천과 영지는 각각 도교적 신선경과 불교적 정토 사상을 의미하며 양자 모두 유토피아(utopia)를 암시한다.

서방극락정토는 정토 중 가장 폭넓게 신앙의 대상으로 회구해 온 불교의 이상향이며 6경과 8경은 명고와 모종은 아침과 저녁 축생(畜生)을 비롯하여 땅위에 사는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기 위한 범음구로 조석(朝夕)의 시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응적 배치구조와 언어구현의 상징성을 볼 때, 자연과 불교적 함축언어를 유사성과 대비성의 원리로서 전개·대응시킴으로써 자연의 섭리를 인간의 의식 안으로 옮겨오려고 시도한 결속구조와 결속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통도팔경은 2개 경씩 대구(對句)를 이루면서 계절성, 방향성, 공간성 그리고 시간성을 축으로 불교적 교리와 관념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된다(그림 8). 노재현(2009)은 '소상팔경'에 비롯한 팔경문화 바로 자연과 인간의 존재 이치를 드러내기 위한 풍경으로 전제된 뒤 "팔경의 이미지 기호는 인생과 자연의 순환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대지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에 대한 시간과 계절에 따르는 순환체계에서 인간이 관조하여 바라본 서사적 풍경이다."라고 정리한 바 있다. 통도팔경에서는 최소한 자연의 시간과 계절에 따르는 시간성이 역시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불교적 장엄세계에 대한 만다라적 배치 분포를 통해 통도사의 영역 속에서 극락세계의 이상향이 펼쳐지고 있음을 서사적 구조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성을 엿볼 수 있다.

한국 사찰경관의 기본적 원리가 극락정토의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해 불교적 교리와 우주관을 상징적으로 펼쳐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세계로 볼 때, 통도팔경은 이러한 경관상징성을 보다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제시된 만다라적 경관언어라 할 만 하다.

V. 결론

지금까지 불지종찰 통도사에 전래되는 통도팔경의 형식과

구조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기존 읍치팔경 및 정자팔경과는 다른 사찰팔경의 새로운 면모와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동일한 팔경 결속어라 하더라도 사찰이라는 특정 장소에 파악된 팔경문화가 어떻게 종교적 경관 속에 습합되어 표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사찰을 장엄하고 있는 다양한 조형요소와 불전들은 불교의 정신세계와 우주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주변의 풍수적 국면을 반영한 공간구성과 배치 특성이야말로 부처님을 향한 구도자들의 종교적 염원을 드러내는 가시적 표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찰내 경관요소를 주제로 읊고 있는 통도사의 팔경 또한 불교적 교리 및 상징성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도사 서쪽의 영축산이 갖는 지명의 의미와 영축산 아래 위요된 옹혼한 장관(壯觀)에서 지각되는 경관상 조차 통도사의 입지상징성이 잘 표현되고 있다. 또한 불보사찰의 위용답게 다수의 부속암자의 중층적 배치 특성에서도 영축산이 갖는 불보세계가 잘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구심적 경관구도를 보이는 쌍룡농주형(雙龍弄珠形)의 형국과 장대한 병풍을 둘러친 모습으로 혈처인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위요경관적 특성에서 중층적 경관 전개와 구심적 경관 의도를 감지할 수 있다.

통도팔경의 경관내용과 구성요소는 소나무, 대(臺), 폭포, 동천(洞天) 그리고 노을 등 물리적 경관 이외에 영지(影池)와 북소리, 종소리 등 불교의식과 관련하여 소리를 내는 범음구(梵音具)에서 파생되는 청각적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중생을 교화·제도하기 위한 소리경관이 강조되고 있는 특성도 발견된다. 또한 통도팔경의 배치를 살펴볼 때, 통도사 영역을 일깨워 주는 국장생석표를 시작으로 물과 다리 그리고 송림숲과 일주문으로 연결되는 유입부를 상징하는 도입부에 무풍한송을 배열하고 대웅전과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둘러 펼쳐진 사찰내 요처에 안양동대 등에 6개경을 배치함으로써 불교적 상징성을 모티브로 한 원심적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수미산을 중심으로 구산팔해를 상징화한 만다라 형상을 보이며 전개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듯 통도팔경은 사찰 경내의 요체인 주경관 요소를 배제하고 유입성과 원심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산문의 영역성과 중첩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더불어 통도팔경의 의미내용을 볼 때 1경과 3경은 한송과 폭포로 각각 겨울과 여름에 그 경관의 적나라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경관이다. 2경과 7경은 동대와 낙조로 동쪽과 서쪽의 방위 지향성으로 설명된다. 4경과 5경의 동천과 영지는 각각 도교적 신선경과 불교적 정토사상을 의미한다. 특히 서방극락 정토는 정토 중 가장 폭넓게 신앙의 대상으로 회구해 온 불교의 이상향으로 양자 모두 유토피아(utopia)를 상징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6경과 8경은 명고와 모종은 아침과 저녁 축생(畜生)을 비롯하여 땅위에 사는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기 위한 범음구로 조석(朝夕)의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도팔경은 2개 경씩 대구(對句)를 이루면서 계절성, 방향성, 공간성

그리고 시간성을 축으로 불교적 교리와 관념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각 경의 성격과 포치구도는 물론 통도팔경의 의미내용을 볼 때 입체적 만다라요, 극락세계의 상징으로, 통도팔경은 만다라의 중층적 성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장치이며 팔경요소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적 의미 속에 지향하고 있는 극락의 상징의미를 통해 통도사의 사찰 영역성을 보다 강화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통도팔경은 기존의 소상팔경의 관습적 이미지와 유가적(儒家的) 특성을 완전히 털어내고 있지는 않지만 사찰이라는 특수한 장소성을 바탕으로 불교적 감성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불가(佛家)에서 제작된 소상팔경시는 물론 팔경 선정 자체가 드물다는 점에서 본고와 같은 논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비교를 위한 타 사찰팔경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표제어만 작품이 내포하는 의미를 포괄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도 통도팔경에 대한 태동시기와 제영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 자료에 의존한 주관적 의미해석에 의존함으로써 많은 비약과 오류가 있을 것을 시인하며 선후배 제현들의 비판과 질책을 기대한다. 또한 통도팔경의 제영자는 물론 제영시기 또는 시문 등의 자료 발굴을 통한 후속연구를 고대한다.

- 주 1) 특정한 읍성(또는 읍치)을 두고 특징적인 장소나 대상 그리고 의미 있는 곳 등 여덟 곳을 택하여 노래한 팔경을 읍치팔경이라 칭한 바 상대적으로 사적 개념의 정자팔경과 달리 읍치팔경은 공적 개념으로서 팔경을 이루어왔다(<http://land.culturecontent.com/>).
- 주 2) 해문장로는 가지산문의 선승으로 30세가 넘어 승과에 급제하여 大禪師에까지 이르렀다. 고종19(1232)년 전후에 華嚴寺 주지로 있었고 몽고 침략으로 1232년 이후에는 강화도 雲門寺에서 지냈으며, 이규보는 물론 유충기, 최중선 등의 사대부와 교유하였다. 동국이상국집에 다수의 시와 이규보가 지은 哀詞가 담겨 있다.
- 주 3) 해인사홍류 계곡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으로 武陵橋, 紅流洞, 噴玉瀑, 七星峯, 完在岩, 泚筆岩, 墨石臺, 落花潭, 吹笛峯, 嶮風瀨, 霽月潭, 學士臺, 光風瀨를 일컫는다.
- 주 4)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6권, 충청도(忠淸道) 황간현(黃澗縣), 佛宇條(<http://cafe.naver.com/>)에는 심묘사(深妙寺)라는 사찰이 등장한다. 또한 심묘사에 대한 묘사에 있어 "절에 팔경(八景)이 있으니, 사군봉(使君峯)·월류봉(月留峯)·산양벽(山羊壁)·용연동(龍淵洞)·냉천정(冷泉亭)·화헌악(花獻岳)·청학굴(靑鶴窟)·법존암(法尊巖)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주 5) 통도사가 위치해 있는 영축산의 한자 표기는 '영축산(靈鷲山)'과 '취서산(鷲栖山)' 두 가지로 표기되지만 이에 대한 한글표기는 「영축산」, 「영취산」, 「축서산」, 「취서산」 등으로 표기되고 있어 혼동을 불러 일으킴으로 인해 2001년 양산시에서는 지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명의 유래와 단일화를 위한 자료조사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영축총림 영축산 통도사'라 통일하였다.
- 주 6) 만다라는 원과 사각이 겹쳐져 있는 구조를 지닌다는 공통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4나 4의 배수로 분할된 원형의 구조를 지닌다. 이 구조는 '존재의 전체성'에 관한 가장 오래된 사고의 모델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만다라에서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는 하나의 중심에서 나와 4의 양상으로 모두 전개된 "운동적 형상"의 전체공간을 드러내는 것이며, 원형의 이미지는 순환과 연관되어 있는 전체로 볼 수 있다. 원이 순환한다는 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중심이다(김희경, 2002).
- 주 7) 지장보살과 암자 배치관계를 상징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반야암, 축서암, 무량암, 보문암은 지장보살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며, 통도

사는 지장보살이 왼손에 들고 있는 법륜에 해당된다. 또한 안양암, 보타암, 취운암, 수도암 등은 왼손에 해당되고 관음암은 지장보살의 왼쪽 어깨에 놓여 있다. 수인을 하고 있는 오른쪽 손은 금수암, 서촉암 및 자장암이 이를 대신하고 있고 사명암, 서운암, 백련암, 옥련암 등은 지장보살의 가부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암자의 배치기 이렇듯 지장보살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짐짓 지옥에 들어가 이들을 위무하고 교화하여 미륵부처가 출현할 때까지 육도윤회의 현실세계에 몸을 나누어 구제하도록 석가모니부처로부터 수기 받은 보살로서 다시 지상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불원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통도사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이 봉안되어 있다.

주 8) 서사란 일정한 사건, 혹은 상황에 대한 서술적 표현으로 서사구조란 서사물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들이 상호 관련되어 이루어진 유기체적 전체로서의 완결적인 구성이라 말할 수 있다. 서사물은 서사를 실현하거나 전달하는 수단이며 이 때 서사물이 가지는 내적인 형식이 서사구조가 된다.

인용문헌

1. 강현옥(1993). 삼보사찰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광철환(2003). 시공불교사전. 서울: 시공사.
3. 기대후(2004). 통도사의 풍수지리학적 입지특성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김갑기(2007). 조선후기 사찰제영시攷. 한국어문학연구. 48: 55-85.
5. 김개천(2004). 명목의 건축. 서울: 안그라픽스.
6. 김광현(1985). 통도사의 중층적 전개에 관한 형태분석. 건축. 29(1): 10-14.
7. 김병우, 김복만(1982). 고대 신라인의 조경의식에 관한 연구; 특히 가람 통도사 조경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14집: 491-504.
8. 김봉렬(2006). 김봉렬의 한국건축 이야기3;이땅에 새겨진 정신. 파주: 들베개.
9. 김영택(2007). 김영택의 쉼화기행. 서울: 지식의술.
10. 김운곤(1982). 역대의 사원전과 그 경각농민; 운문사와 통도사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논총. 12·13합본집: 145-186.
11. 김재영(2004). 통도사 공간구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7세기~14세기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김형우, 신대현, 안병인(2004). 한국의 사찰 下. 서울: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13. 김희영(1984). 상징으로 본 한국 불교사찰의 경관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김희경(2000). 상상계와 문화원형 연구; 수 원형과 만다라. 기호학연구. 8(1): 87-124.
15. 노재현(2009). 소상팔경. 전통경관 텍스트로서의 의미와 결속구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7(1): 101-119.
16. 박연호(2004). 16세기 이전 원림문학의 공간특성연구. 개신어문연구. 21집: 81-108
17. 배경관(2005). 사찰 내 암자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조계종 사찰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 배진달(2009). 연화장세계의 도상학. 서울: 일지사.
19. 법보신문(2008). 시민과 함께하는 개산문화축제. 2008년 9월 22일.
20. 부산일보(2009). 영성과 깨침의 보금자리 종교 건축을 보다. ⑤통도사 금강계단과 대웅전 진신사리 모신 '불교 문화 정수'. 5월2일자. 13면.
21. 서치상(2000). 통도사 자장암에서 보는 우리건축의 拙美. 석림. 34: 159-187.
22. 석도열(2000). 만다라이야기. 서울: 맑은소리.
23. 심봉근(2002). 통도사 주변의 신라유적. 양산의 역사와 문화. 통도사성보박물관: 232-243.
24. 안동선(2002). 통도사 사찰관광자원의 매력성과 만족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안영배(1981). 통도사 가람배치에 관한 연구. 건축. 25(1): 3-7.
26. 안제인(2008). 제영시에 나타난 사찰의 형상화; 삼보사찰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어문학회지. 12: 183-210
27. 양상현(1999). 조선시대 사찰배치의 서사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8. 오영미(2009). 영취산 통도사의 풍수지리적 고찰.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 오홍선(1999). 의식을 통해 본 통도사 공간구성 특성에 대한 조사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 울산대학교 건축대학(1980). 통도사 가람배치실측조사. 울산대 연구논문집. 울산: 예문사.
31. 윤성호(1987). 한국 사찰건축의부공간들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통도사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 이강훈(1993). 통도사에 있어서 건축공간의 중심성. 충북대학교 건설기술논문집. 12(2): 45-58.
33. 이권영, 서치상(2002). 통도사 자장암의 건축에 내재된 조영의도와 미의식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1(4): 117-128.
34. 이규성(1985). 정연한 건축체계로서 통도사 건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 61-67.
35. 이기영, 이용민, 정병조, 장충식(1999). 통도사, 한국의 사찰 4. 한국불교연구원. 서울: 일지사.
36. 이동영, 김을용(1990). 양산 통도사 가람건축에 관한 연구(II). 대전공업대학논문집. 7(2): 251-277.
37. 이명진(1998). 사찰관광지 해설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통도사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0(2): 105-121.
38. 이승훈(1994). 종교적 경관에서의 상징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통도사와 성피에트로성당의 비교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9. 이은주(2000). 삼보사찰의 가람배치에 대한 고찰. 선문사학. 1: 19-54.
40. 이혁(2000). 산문을 중심으로 한 전통사찰 진입공간의 특성 고찰.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1. 장영훈(2007). 산 나고 탑 나고 절 나고. 서울: 도서출판 담디.
42. 전경원(2002). 소상팔경 한시의 함의와 정서적 기어; 어촌낙조를 대상으로. 겨레어문학. 29: 15-43.
43. 정각(2007). 말사탐방 월간 등불. 2007년 1·2·3·4·5·6·7월호.
44. 조남두(2003). 사찰건축에서의 수공간의 의도성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문집. 33: 263-282.
45. 조태상(2009). 法宗 虛靜의 <소상팔경차운> 연구; 내용과 구성에 나타난 불교적 감성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69: 199-218.
46. 주용규(1995). 한국 전통가람 통도사의 조영원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7. 최기수(1990). 曲과 景에 나타난 한국전통경관 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8. 통도사성보박물관(2001). 다시 보는 통도사; 통도사의 역사와 문화계.
49. 통도사성보박물관(2002). 양산의 역사와 문화. 서울: 시티파트너.
50. 한국전통조경학회(2009). 동양조경문화사. 서울: 대가.
51. 한동수, 이해성(1986). 통도사영역의 형식과정과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 15-28.
52. 홍광표(2008). 한국전통사찰의 경관상징성. 전통문화환경에 새겨진 의미와 가치. 파주: 도서출판 조경.
53. 홍윤식(1997). 통도사의 가람구조와 그 성격. 불교미술. 14: 51-76.
54. 홍재동(2001). 통도사 상로전 영역의 공간구성 변화 고찰. 건축역사연구. 10(3): 45-60.
55.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7986251
56. <http://blog.daum.net/dlwk65/5265159>
57. http://cafe.naver.com/mahamudr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22
58. <http://land.culturecontent.com/>
59. http://tongdomuseum.or.kr/08_open/open02.asp
60. <http://www.dosunsa.or.kr/zeroboard/view.php?id=sachal&no=40>

원고접수: 2010년 2월 10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0년 3월 16일
 2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